

# 지진 대비책

〈편집실〉

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는가? 안심할 수 없는 것은, 역사상 많은 지진이 있었으며 근래에도 몇 차례 큰 지진이 있었다는 점이다. 여기 지진 발생전, 발생시, 그리고 발생후 유의사항을 엮어 보았다.

## 지진에 대비한 준비

휴대용 라디오와 플래시를 포함한 응급품 외에 다음의 사항을 준비할 것.

물(1인당 1  
말 정도)과 말렸거나 깡통에 든

음식(1인당 2주일분)

응급약품 및 응급처리 핸드북  
펜치 등 도구(필요시 가스나 수  
도 차단)

비누와 화장지

소화기와 가능하면 가정용 연기  
감지기(방재센터와 연결되지 않  
은 독립식)

여벌의 옷, 이불 또는 슬리핑백

개인용품(주민등록증 포함)

넓은 플라스틱 조각(그라운드  
커버용)



- 차 안에 있다면 : 차 운전을 중지하되 차 안에 머물러 있을 것. 단, 다리(교각) · 나무 · 조명, 광고물 등의 근처에서 있지 말것.

## 지진이 끝난 후에도 방심말 것

- 일부 붕괴되거나 완전히 무너진 집에 들어가지 말 것. 갑자기 나머지 부분이 여진으로 인해 무너질 염려가 있음.

- 옥내외에 노출된 전선을 피할 것. (접근말 것)

- 화재 염려가 있나 체크할 것.

- 가스가 샐 염려가 있으면 밸브를 잠그고 가스회사에 연락할 것.

- 옥내 배선상 이상이 있으면 두꺼비집이나 콘트롤박스를 차단할 것.

- 화재, 간혀 있는 사람, 다친 사람 등 위급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만 전화를 사용할 것.(전화 폭주 방지)

- 이웃에 도울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체크할 것

- 여진에 대비할 것

-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.

- 출입구에 책선반이나 파일 캐비넷을 두지 말 것. 위급시 피난로를 차단할 우려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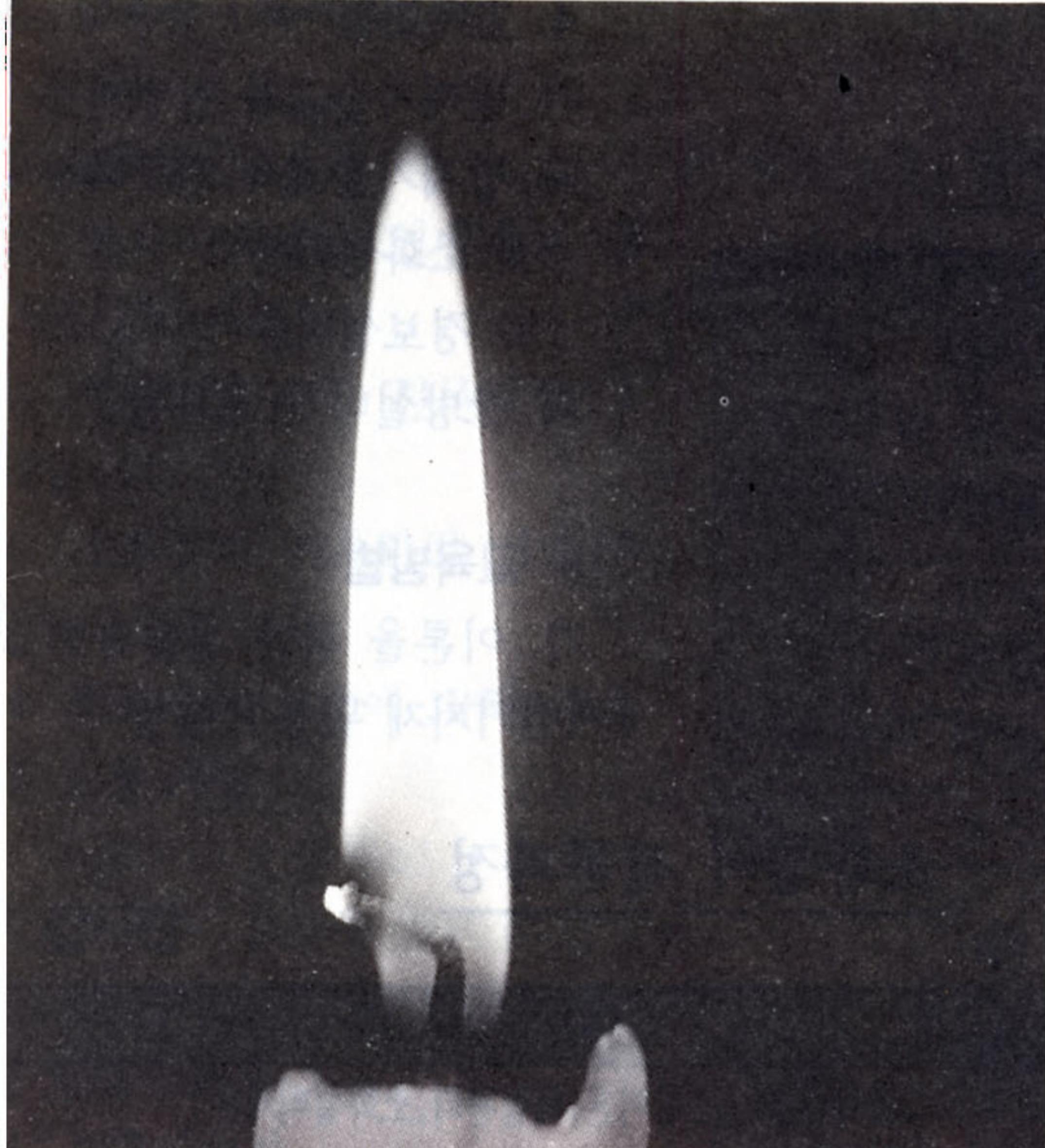
- 지진 발생시 침착할 것 (공포심을 버릴 것)

- 만약 집 안에 있다면 : 책상이나 테이블 같은 단단한 가구 밑에 들어가 있을 것. 창문이나 테라스, 문 근처에서 멀리 있을 것

- 만약 집 밖에 있다면 : 건물이나 전선에서 면 공지에 있을 것.

# 「불」에 관한 우리 옛 말들

〈편집실〉



- 가다귀 ; 참나무 등의 잔가지로 된 땔나무
- 가리 ; 땔나무를 쌓은 더미
- 가리나무 ; 솔가지를 긁어놓은 땔나무(깔기나무)
- 가리부피 ; 나뭇단을 쌓아올린 더미의 부피
- 가시섶 ; 가시나무의 땔나무
- 갈비 ; 불쏘시개로 쓰는 솔잎
- 강참숯 ; 순 참숯
- 검불 ; 지푸라기, 마른 풀, 낙엽 같은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
- 경불 ; 겨를 태운 불
- 고쿨 ; 두메산골에서 밤에 불을 절 때 불붙이는 관 솔을 올려놓기 위하여 벽에 오목하게 뚫어 놓은 자리
- 괄다 ; 화력이 세다
- 구멍탄 ; 구멍이 여러개 뚫린 원주형의 연탄
- 군불 ; 방만 덥게 하려고 때는 불
  
- 깜부기숯 ; 줄거리 나무에서 생긴 뜯 숯(줄거리-입이 다 떨어져 나간 가지)
- 꽃불 ; ① 이글이글 타오르는 파란 불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흑백화약에 철분 등을 섞어 통에 넣고 점화하여 공중높이 올리는 불
- 끄느름하다 ; 아궁이에 타는 불기운이 세지않을 정도로 달아있는 상태
- 나무새 ; 여러가지 땔나무의 총칭
- 남포동 ; 등피를 써운 석유등잔
- 냉과리 ; 덜 구워져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
- 도깨비불 ; ① 원인모르게 일어난 화재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어두운 밤에 묘지나 습지 등에서 인(隣) 작용으로 번쩍이는 푸른 빛의 불꽃을 미신적 관념에서 이르는 말
- 부손 ; 화로에 꽂아놓고 쓰는 작은 부삽
- 부싯짓 ; 부시를 칠 때 불똥이 박혀서 불이 붙는 물건(약쑥이나 수리치 따위의 잎사귀를 불에 볶아 비벼서 만든다)
- 불당그레 ; 아궁이에 불을 밀어 넣거나 그려내는 데 쓰는 작은 고무래
- 불땀 ; 화력이 세고 약한 정도
- 불잉걸, 잉걸 ; 불이 이글이글 판 숯덩이
- 삼불 ; 산후에 태를 태우는 불
- 쪽대불 ; 쪽을 뜯어 말려서 단으로 만들어 붙인 불(집이나 방안의 해충을 쫓는데 쓰인다)
- 관솔 ; 소나무에서 송진이 엉켜붙은 부분